

李白「古風」五十九首 譯解(6)

- 제 37수 에서 제 44수 까지*

金貞熙, 呂亭淵**

<目 次>

- | | |
|----------|----------|
| 1. 서론 | |
| 2. 본론 | |
| 1) 燕臣昔慟哭 | 2) 孤蘭生幽園 |
| 3) 登高望四海 | 4) 鳳飢不啄粟 |
| 5) 朝弄紫泥海 | 6) 搖裔雙白鷗 |
| 7) 周穆八荒意 | 8) 綠蘿紛葳蕤 |
| 3. 결론 | |

1. 서론

李白(701 則天武后 長安 元年 - 762 肅宗 寶應 元年)의 「古風」 59수는 모두 5언으로 되어 있는 無題詩다. 오언고시로 구성된 이 시들은 편찬 방식에 있어 연대의 선후에 순서가 없고, 특정한 지역에서 일시에 지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그 주제와 구성이 다양하다. 따라서 '고풍' 59수의 편찬자와 그 작품 수량 및 주제 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고풍이란 본래 고대 풍습이나 옛 사람의 품격을 의미했다. 하지만, 청대 宋犖은 《漫堂說詩》에서 “이백의 ‘고풍’은 고시19수의 뜻을 얻었다”¹⁾고 하여 ‘고풍’을 古詩

* 이 논문은 '高山麗水講讀會'의 발표와 토론을 거친 후,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최종 책임 교열한 것이다.

** 한양여대 교수(주저자), 우송대 초빙교수(교신저자 treefish12@lycos.co.kr)

1) “완적의 영희시, 진자양의 감우시, 이백의 고풍, 위응물의 의고시는 모두 고시19수의 뜻을

와 같은 의미의 詩體로 해석했다. 이후 이백의 '고풍 59수'는 체제와 내용 및 풍격 등의 여러 측면에서 한나라 이후 詠懷 古詩의 집대성으로 간주되었다.²⁾

이백 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번역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본고는 '古風' 59수 가운데 제37수에서 제44수까지 총 8수에 대해 번역하였다. 原文은 宋蜀本을 저본으로 하고, 詹鍈가 主編한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을 참고하여 註釋을 달았으며, 본문과 그 번역 뒤에 校記·詳釋·解說을 붙였다.

2. 본론

1) 고풍 제37수 燕臣昔慟哭

燕臣昔慟哭 ³⁾	예전에 연나라 신하 추연이 통곡을 하니
五月飛秋霜	오월에도 된 서리 휘날렸다더라.
庶女號蒼天 ⁴⁾	미친한 과부가 하늘에 부르짖으니
震風擊齊堂	거센 바람이 제나라 궁궐을 내리쳤었네.

언었다.(阮嗣宗詠懷, 陳子昂感遇, 李太白古風, 韋蘇州擬古, 皆得十九首遺意)" 宋肇, 《清詩話》(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417쪽.

2) 郁賢皓, 〈李白'古風'五十九首芻議〉, 《中國文學研究》, 1989年 4期, 3-4쪽.

3) 燕臣: 戰國시대 燕나라의 신하인 鄒衍(추연)을 가리킨다. 王充의 《論衡》에 "鄒衍은 죄가 없었으나, 燕나라에 갇혔다. 때는 한여름 오월이었는데,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을 하니 하늘에서 서리가 내렸다.(鄒衍無罪, 見拘于燕. 當夏五月, 仰天而嘆, 天爲隕霜)"라는 전고가 있다.

4) 庶女: 미친한 여인으로, 여기서는 齊나라의 신분 낮은 과부를 가리킴. 《淮南子·覽冥訓》에 "미친한 여인이 하늘을 부르니, 번개가 아래로 쳐내려 景公의 누대가 떨어지니 사지가 다쳐 부러졌고, 바닷물이 크게 넘쳤다.(庶女叫天, 雷霆下擊, 景公臺隕, 支體傷折, 海水大出)"라는 전고가 보이며, 高誘는 이에 대해 注를 달기를, "미친한 여자는 제나라의 과부로 무자식에 改嫁를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모셨다. 시어머니에겐 아들이 없고 딸이 있었는데 딸은 어머니의 재산을 탐을 내 어머니에게 며느리를 개가 시키게 했으나, 며느리는 끝내 개가 가지 않았다. 딸은 그 어머니를 죽이고 무고하게 며느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었는데 며느리가 스스로 말할 수 없자 한을 품고 하늘을 불렀더니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쳐 景公의 누대가 떨어져나가니 景公이 사지를 다쳤고 바닷물이 넘쳐흘렀다.(庶賤之女, 齊之寡婦, 無子不嫁, 事姑謹敬. 姑無男有女, 女利母財, 令母嫁婦, 婦終不肯. 女殺母以誣婦, 婦不能自明, 冤結叫天, 天爲行雷霆下擊, 景公之臺隕壞, 毀景公之支體, 海水爲之溢出也)"라고 했다.

精誠有所感	정성에 감동을 받은 것이니
造化爲悲傷	조물주도 그들 위해 슬퍼한 것이라네.
而我竟何辜	그런데 나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遠身金殿旁	임금 곁을 멀리 떠나야 하는가.
浮雲蔽紫闈 ⁵⁾	뜬 구름이 황궁을 가리니
白日難輝光	백일은 빛을 내기 어렵구나.
羣沙穢明珠	모래더미는 밝은 구슬을 더럽히고
衆草凌孤芳 ⁶⁾	잡초는 외로운 향초를 뒤덮는구나.
古來共歎息	예부터 모두 탄식했을 뿐이니
流淚空沾裳 ⁷⁾	눈물 흘리며 공연히 옷을 적시네.

<校記>

제6구(아래에)는 다른 판본에 “一本此下添而我竟何辜，遠身金殿旁”라고 표시되어 있다. 제13구 ‘歎息’은 다른 판본에 ‘今來’라고 되어 있으며, 제14구 ‘沾裳’은 다른 판본에 ‘霑裳’이라고 되어 있다.

<詳釋>

戰國시대 燕나라에 충성을 다했으나 억울한 누명을 쓴 鄒衍이 하늘을 향해 통곡을 하자, 음력 오월 한 여름에 갑자기 가을 서리가 휘날렸었다.

齊나라의 한 신분이 미천했던 과부가 시어머니를 죽였다는 무고를 받아 억울한 나머지 맑은 하늘에 대고 소리 내 울었더니 벼락이 갑자기 제나라 景公의 당상에 내리쳐 경공이 크게 다쳤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도 그들의 정성에 감동을 받아 감응한 것으로 조물주도 이들을 위해 슬퍼했던 것이다.

5) 紫闈: '자줏빛 문'으로 여기서는 제왕이 머무는 궁궐을 가리킴. 曹植의 〈求通親親表〉에 “황제에게 온 마음을 쏟고, 황궁에 정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神明도 알고 있습니다.(至於注心皇極, 結情紫闈, 神明知之矣)”라는 전고가 있다.

6) 明珠, 孤芳은 모두 군자를 비유하고, 群沙, 衆草는 모두 소인배를 비유한다.

7) 沾裳: 눈물이 많은 모양을 나타냄.

그런데 나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황궁에 계시는 임금의 곁을 멀리 떠나야만 하는 것인가?

이것은 간신배 같은 뜬 구름이 황궁을 가려 태양 같은 임금의 덕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밝은 구슬 같은 군자는 바닷가 모래흙 같은 소인배들에게 더럽혀지고, 고한 향초는 무성한 잡초에 침범을 당한다.

예부터 이런 일로 모두가 탄식했었으니, 헛되이 눈물 흘리며 옷을 적실뿐이다.

<解說>

이것은 억울한 누명을 썼던 연나라 신하 鄒衍과 제나라의 과부의 전고를 '興'의 수법으로 원용하여 자신이 누명을 쓰고 임금 곁을 떠나가게 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述懷詩이다. 蕭士贇은 이 시에 대해 "이태백이 고력사가 그의 신발을 벗겨 주었던 수치를 품고 있다가 〈清平樂〉의 시어를 트집 잡아 양귀비에게 참언을 한 일을 당해 쫓겨나던 때에 지은 것이 아닌가? '浮雲(뜬 구름)'은 高力士(고력사)를, 紫鬪(자줏빛 문)은 '宮中(궁중)'을, '白日(하얀 해)'는 '明皇(당현종)'을, '衆草(잡초)'는 '小人(소인)'을, '明珠(밝은 구슬)', '孤芳(외로운 향초)'는 '君子(군자)'를 비유한다. (其遭高力士懷脫靴之恥, 摘〈清平樂〉詞之語譜于貴妃, 放黜之時所作乎? 浮雲比力士, 紫鬪比宮中, 白日比明皇, 衆草以喻小人, 明珠孤芳以喻君子)"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 시의 창작시기에 대해서 소사빈은 天寶2年(743) 가을에 고력사와 양귀비에게 참언을 당해 궁궐에서 쫓겨나던 시기에 지은 것으로 본 반면, 劉履의 《風雅翼》에서는 "이 시는 대체로 쫓겨난 이후에 지은 것으로, 그런 까닭에 궁궐에서 떨어진 탄식이 있는 것이다. (此篇殆放黜已後所作, 故有遠身金殿之歎)"라며 天寶2年 이후의 것으로 여겼으며, 詹鏞은 구체적으로 "天寶3年(744) 이백은 금을 하사받으며 관직을 떠났는데 이 시는 마땅히 이때에 지은 것이다. (天寶三載, 白賜金放還, 此詩當作於是時)"라고 언급했다. 전체적으로 시는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 시어에는 누구를 심하게 원망하거나 화내는 묘사는 자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고풍 제38수 孤蘭生幽園

孤蘭生幽園, 외로운 난초 그윽한 동산에서 자라는데
 衆草共蕪沒.⁸⁾ 잡초들 우거져 덮는구나.
 雖照陽春暉,⁹⁾ 봄 햇살을 쬐이기도 했지만
 復悲高秋月.¹⁰⁾ 깊은 가을 달에 다시 슬픔 일어나네.
 飛霜早淅瀝,¹¹⁾ 무서리 허영게 내리면
 綠艷恐休歇.¹²⁾ 푸른 잎, 고운 꽃 시들까 두렵네.
 若無清風吹,¹³⁾ 맑은 바람 불지 않으면
 香氣爲誰發.¹⁴⁾ 향기를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까?

<校記>

제6구 '休歇'의 '休'자가 '停'으로, 제8구 '誰發'의 '誰'자가 '君'으로 되어 있는 판본이 있다.

<詳釋>

외로운 난초 하나 깊고 그윽한 동산에서 자라고 있는데, 못 잡초들 함께 우거져 덮는구나.

난초에 비록 봄 빛 비추었지만, 어느새 깊은 가을되어 가을 달 보고 있노라니

8) 蕪沒: (잡초가) 우거져 덮다.

9) 陽春: 봄, 봄날.

10) 高秋: 하늘은 높고 기운이 상쾌한 가을, 깊은 가을(深秋).

11) 飛霜: 서리가 내리다. ○ 淅瀝: 서리 내리는 소리를 형용. '淅瀝'에 대해 朱諫은 "젓어 축축하다는 의미.(霑濕意)", 劉良은 "淅瀝은 가늘게 내리는 모양(淅瀝, 細下貌)"이라고 하였다. '淅瀝'의 용례가 謝惠連의 <雪賦>에 "싸라기 눈 스텝스텝 먼저 내리더니, 눈가루 섞여져 드디어 많아지네.(霰淅瀝而先集, 雪紛糝而遂多)" 등에 보인다.

12) 綠艷: 난초의 푸른 잎과 아름다운 꽃. ○ 休歇: '休'는 마치다, 죽다. '歇'은 시들다. '休歇'은 시들다.

13) 清風: 맑고 온화한 바람으로 만물을 자라게 함.

14) "若無" 2구: <抱朴子·交際>에 "난 꽃이 향기를 진하게 발산하는 것은 청풍 덕분이고, 은자가 향촌에서 기용되는 것은 지기 덕분이다.(芳蘭之芬烈者, 清風之功也; 屈士起于丘園者, 知己之功也)"라는 말이 있다.

다시 슬픔 일어나는구나.

가을되어 이른 서리 하얗게 내리면, 푸른 잎과 고운 꽃 시들까 두렵기 때문이네.

만약 맑고 온화한 바람 불어오지 않는다면, 난초 향기 누구를 위해 전할 수 있을까?

<解說>

이 시는 깊고 그윽한 동산에 외롭게 자라고 있는 난초를 읊조리고, 이른 서리에 난초의 푸른 잎과 고운 꽃이 시들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향기를 자아내기 위한 淸風의 도움이 없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었다. 이를 통해 이백이 자신의 재주와 포부를 아직 발휘하지도 못했는데 육신은 이미 늙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또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향기'를 발산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 시의 전체 분위기로 보면, 開元 간에 이백이 현종을 만나지 못했을 때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蕭士贊은 “이 시는 군자가 초야에 묻혀 있으면서 못 사람들 중에서 발탁되지 못했고, 비록 군주가 알아주기는 하였지만 소인의 중상모략을 받았다. 만약 못 사람들 가운데서 발탁되어 등용되지 않으면, 비록 향기가 있어도 어떻게 스스로 드러낼 수 있으랴 라고 한 것이다.(詩謂君子在野, 未能自拔於衆人之中, 雖蒙主知, 而小人之讒譖已至。若非引類拔萃而薦用之, 雖有馨香, 何以自見哉)”라고 하였다. 그러나 혹자는 “이 시는 이백이 부름을 받고 長安에 들어간 지 2년째 되는 가을에 지었는데, 이 시기 고력사(高力士) 등의 이간질로 당 현종이 이백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이백이 냉대의 처량함을 느끼고 지은 것”이라 하였다.

3) 고품 제39수 登高望四海¹⁵⁾

登高望四海,¹⁶⁾ 높은 산에 올라 천하를 바라보니
 天地何漫漫!¹⁷⁾ 천지가 어찌나 아득하고 아득한지!
 霜被群物秋,¹⁸⁾ 서리 덮인 만물은 가을빛을 띠고
 風飄大荒寒. 바람 휘몰아치는 황량한 들판은 찬 기운만.
 榮華東流水,¹⁹⁾ 꽃다운 시절 동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가버리고
 萬事皆波瀾.²⁰⁾ 세상만사는 모두가 파도처럼 무상하네.
 白日掩沮暉,²¹⁾ 밝은 해는 저녁노을에 가리어지고
 浮雲無定端.²²⁾ 뜬 구름은 여기저기 떠다니네.

15) 이 시는 宋蜀本の 注에 따르면 판본에 따라 “登高望四海, 天地何漫漫! 霜被群物秋, 風飄大荒寒” 아래 8구절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殺氣落喬木,	찬 기운 교목의 잎을 떨구고,
浮雲蔽層巒.	뜬구름 중첩된 산을 가리네.
孤鳳鳴天倪,	외로운 봉황은 하늘 끝에서 울음 우는데,
遺聲何辛酸.	그 여음이 어찌나 쓰라리고 고통스럽게 들리던지.
遊人悲舊國,	나그네는 장안과의 작별 슬퍼,
撫心亦盤桓.	가슴 어루만지며 머뭇머뭇 맴돌기만.
倚劍歌所思,	칼 뽑아 노래 부르며 명군현신의 옛 시절 그리워하니
曲終涕泗瀾.	곡 끝나자 눈물콧물 마구 흐르네.

16) 四海: 天下. 전국 각처.

17) 漫漫: 한없이 넓고 멀어 끝이 없는 모양(廣遠無際貌).

18) 被: 덮다.

19) 榮華: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시절·나이. <離騷>에 “아름다운 얼굴 시들기 전에, 이를 바칠 수 있는 여인을 이 세상에서 찾으리라.(及榮華之未落兮, 相下女之可)”가 있고, 曹植, <雜詩> 之五에는 “남국에 아름다운 여인, 활짝 핀 얼굴은 복사꽃 자두꽃 같다네.(南國有佳人, 榮華若桃李)”가 있다. ○ 東流水: 동쪽으로 흐르는 강물. 중국의 西高東低의 지형에 따라 강물은 서쪽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지형에 따라 급류가 세차게 동쪽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사라져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비유할 때 자주 사용한다. 李白 <夢遊天姥吟留別>에 “세상 즐거움이란 다 이와 같나니, 예로부터 인간만사는 동으로 흐르는 강물이라네.(世間行樂亦如此, 古來萬事東流水)”라는 구절이 있다. ○ 王琦는 이 구절을 “세월이 동쪽으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가버린다.(言年華日去, 如水之東流)”고 해석했다.

20) 波瀾: 파도. 세상일이 오르락내리락 변화하는 것을 비유한다.

21) 白日: 태양. ○ 掩: 가리다. ○ 沮暉: 해질녘의 빛. 蕭士贊은 白日은 임금을 상징하고, 沮暉는 임금의 만년을 비유한다고 했다.

22) 浮雲: 뜬 구름. ○ 定端: 고정된 장소. 蕭士贊은 浮雲은 간신을 상징하고, ‘無定端’은 政슈이

- 梧桐巢燕雀,²³⁾ 오동나무엔 제비와 참새가 둥지를 틀고
 枳棘棲鸞鷲,²⁴⁾ 가시나무엔 봉황과 난새가 머무르네.
 且復歸去來,²⁵⁾ 장차 다시 돌아가리라
 劍歌行路難.²⁶⁾ 칼자루 두드리며 〈행로난〉 부르네.

<詳釋>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를 바라보니 천지는 한 없이 넓고 멀어 아득하기만 하다.
 가을날 서리 덮인 세상 만물들은 가을빛을 띠고, 불어오는 바람에 황량한 들판
 엔 찬 기운만 감돈다.

아름다운 시절은 동쪽으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금세 흘러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

수시로 변하는 것이라고 했다. 王琦는 ‘浮雲無定端’을 다음의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했다. ① 이 세상에서의 삶이란 행적이 정해진 것이 아니니, 이러한 것에 연연할 필요가 있겠는가? ② 위의 구절과 함께 해석하여, 지는 해가 뜬 구름에 가리어지다. 즉 淸明한 사람이 참언과 사악한 농간으로 미혹되다.

- 23) 梧桐: 오동나무로, 고대에는 봉황이 서식하는 나무로 여겼다. 《莊子·秋水》에서는 “봉황은 남해에서 출발하면 북해까지 날아가는데,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 않고, 練實(대나무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고, 醴泉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夫鸞雛發於南海而飛於北海, 非梧桐不止, 非練實不食, 非醴泉不飲)”고 하였다.
- 24) 枳棘: 탕자나무와 가시나무로, 가시가 많아 惡木으로 칭해지며, 惡人 혹은 小人을 비유한다. 여기에서는 참새나 제비가 서식하는 나무를 지칭한다. 《後漢書·仇覽傳》에서 “탕자나무와 가시나무는 난새나 봉황이 깃들여 살 곳이 아니니, 百里가 어찌 큰 어진이냐 다스릴 곳이었는가?(枳棘非鸞鳳所棲, 百里豈大賢之路?)”라고 하였다. ○ 鸞鷲: 鸞과 鷲. 모두 봉황의 종류로, 賢人을 상징하는 의미로 상용된다.
- 25) 且: 장차, 머지않아.
- 26) 劍歌: 칼자루를 두드리며 노래 부르다. 전국시대 馮諼이 孟嘗君의 문객으로 있을 때 자신을 알아주지 않자, 기둥에 기대어 칼을 두드리며, 밥을 먹을 때 고기가 나오지 않고 외출할 때 수레가 없으며 노모를 봉양할 집이 없으니 “칼아 돌아가자(長鋏歸來乎)”며 〈長鋏歌〉를 불러 한탄했더니, 이를 들은 맹상군이 요구를 들어주었다. 이후 자신의 재주와 정성을 다해 맹상군을 보좌했는데, 특히 맹상군에게 빚을 진 薛 淸 주민들의 채무증서를 불태워 민심을 얻게 한 고사로 유명하다. 나중에 맹상군이 齊王의 신뢰를 잃고 封國으로 돌아갔을 때 설 淸 주민들이 백 리나 나와 환영했다고 한다. 그가 秦王과 제왕을 설득해 맹상군이 다시 복위시키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는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 주군이나 상관에게 자신을 알아달라는 비유로 널리 쓰여, 칼자루를 두드린다(彈劍, 彈鋏)는 자기의 재능이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불만이나 울분을 나타낼 때 자주 쓰인다. ○ 行路難: 악부곡명. 《樂府古題要解》에 “〈행로난〉은 세상살이가 험난하고 이별이 슬프다는 의미이다.(《行路難》備言世路艱難及離別傷悲之意)”라고 기록되어 있다.

을 것이고, 세상의 모든 일은 파도가 높게 몰아쳤다 부서지는 것처럼 높아졌다 낮아졌다 변화무상하다.

밝은 해가 저물녘이 되자 그 빛이 가리어지듯 현명한 군주 판단력 흐려졌고, 여기저기 떠다니는 뜬 구름 같은 간신배들이 여기저기에서 설치고 다닌다.

봉황이 깃들어야 할 오동나무엔 제비와 참새가 둥지를 틀고, 가시덤불 속에는 봉황과 난새가 머무르니 내가 있을 곳은 아니다.

장차 돌아가리라, 내 재능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세상 원망하며 馮諼처럼 칼자루 두드리며 세상살이 어려움 담은 〈行路難〉 부른다.

<解說>

詹鍇은 《李白詩文繫年》에서 이 시를 天寶3年(744)에 기록하고, 참소를 당하여 조정을 떠날 때 쓴 것으로 보았다. 蕭士贊은 이 시를 간신배들이 득의양양하여 권력을 쥐고 휘두르며 임금의 눈을 가린 당시의 현실을 풍자한 것으로 보았다. 또 세상물정을 알고 일의 기미를 알아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은거를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다. 왕기 또한 왕이 간신배들에 의해 사리판단이 흐려져 이백이 임금의 신임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떠나기 위해 이 시를 지었다고 했다.

이 시는 가을날 높은 산에 올라가 광활하고 끝없이 천지 아래를 내려다보며 빠른 세월의 흐름과 세상사의 부침을 생각하며, 〈歸去來〉와 〈行路難〉의 탄식을 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登-望-想-嘆의 맥락으로 이루어져있다.

4) 고흥 제40수 鳳飢不啄粟

鳳飢不啄粟, 봉황은 굶주려도 좁쌀 쪼지 않고
所食唯琅玕.²⁷⁾ 오직 낭간(琅玕)만을 먹는다네.

27) 琅玕: '瑯玕'으로도 쓴다. 신화와 전설에 나오는 선수(仙樹: 瓊樹)에 열린다는 열매를 말한다. 《장자》에서 "노자가 공자를 만났다. ... 노자가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듣자 하니, 남방에 새가 있어, 이름이 봉(鳳)이라는데, 천 리 높이 돌을 쌓은 곳에서 살면서 생식을 한다 하고, 그 나무가 경수(瓊樹)요, 키가 백 길이며, 구림(瓊琳)·낭간(琅玕)이 열매로 열린다고 하오'라고 했다.(老子見孔子,老子嘆曰: 吾聞南方有鳥, 其名為鳳, 所居積石千裏, 天爲

焉能與羣雞,	어찌 아웅다웅 못 닭과 어울려
蹙促爭一漚. ²⁸⁾	밥 한 끼를 다투리오.
朝鳴崑丘樹, ²⁹⁾	아침에는 곤륜산(崑崙山) 나무에서 울고
夕飲砥柱湍. ³⁰⁾	저녁에는 지주산(砥柱山) 여울물을 마신다네.
歸飛海路遠,	날아 돌아가는 바닷길 멀어서
獨宿天霜寒.	서리 내린 추운 밤 혼자 묵는다.
幸遇王子晉, ³¹⁾	왕자진(王子晉) 만날 수 있다면
結交青雲端.	푸른 구름 저 위에서 교분을 맺으리.
懷恩未得報,	입은 은혜 아직 갚지 못해
感別空長嘆.	이별 슬퍼하며 그저 길게 탄식한다.

<校記>

제4구의 '蹙促'이 '刺促'으로 쓰여 있는 판본도 있고, '蹙促'이 '刺蹙'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詳釋>

봉황은 아무리 굶주려도 좁쌀은 쪼아 먹지 않고, 오직 선수(仙樹)에 열리는 낭

生食。其樹名瓊枝，高百仞，以瑤琳琅玕爲實”고 했다. 그밖에 낭간은 주옥처럼 생긴 아름다운 돌, 진귀하고 아름다운 물건·음식·문사(文辭), 뛰어난 인재 등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28) 蹙: '刺'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척축(蹙促)은 안달하는 모양, 쪼들리는 모양, 쪼그라든 모양, 협소한 모양, 불안한 모양, 촉박한 모양 등을 형용하는 의태어로, 국축(局促)·국축(侷促)·국축(跼促) 등도 같은 유형이다. ○ 漚: 贅과 같다.

29) 崑丘: 곤륜산(崑崙山).

30) 砥柱: 산 이름. 《水經注·河水四》 주석에 따르면, “지주(砥柱)는 산 이름이다. 옛날 우(禹)가 홍수를 다스릴 때, 산이 물을 가로막으면 뚫었다. 그래서 산을 갈라 황하가 흐르게 하여, 황하가 나뉘어 흐르며 산을 감싸고 지나가서, 산이 마치 물속에서 기둥처럼 서 있었다. 그래서 지주(砥柱)라고 했다.(砥柱, 山名也, 昔禹治洪水, 山陵當水者鑿之, 故破山以通河, 河水分流, 包山而過, 山見水中若柱然, 故曰砥柱也)”고 하였다. 또는 삼문산(三門山)을 가리키기도 한다. 지금의 하남 삼문협(三門峽)동북쪽 황하에 있다.

31) 王子晉: 왕자교(王子喬). 전설에 나오는 신선. 유향의 《列仙傳·王子喬》에 따르면, “왕자교는 주(周)나라 영왕(靈王)의 태자 진(晉)이다. 생(笙)을 불어 봉황 소리를 잘 냈다. 이수(伊水)·낙수(洛水)에서 노니는데, 도사 부구공(浮丘公)이 데리고 승산으로 올라갔다.(王子喬者, 周靈王太子晉也. 好吹笙做鳳凰鳴, 遊伊洛間, 道士浮丘公接以上嵩高山上)”고 하였다.

간(琅玕) 열매만 먹는다. 아무리 굶주린다 해도 어찌 닭과 한데 뒤엉켜서 아웅다웅하며 밥 한 끼를 다투려고 하겠는가.

아침에는 곤륜산 찾아가 나무에서 울고, 저녁에는 지주산으로 돌아와 여울물 마신다.

날아 돌아오는 바닷길은 멀고도 멀어서, 서리 내린 추운 밤에는 혼자 목기도 한다.

그러나 이수·낙수에서 노닐다 신선이 되었다는 왕자진을 만날 수 있다면, 푸른 구름 저 위에서 그와 함께 어울리고 싶다.

세상으로부터 입은 은혜 갚아야 하건만 아직 갚지 못해, 이대로 이별하면 어찌 하나 슬퍼하며 길게 탄식할 뿐이다.

<解說>

이백의 고향에서 신선이 되고 싶어 하는 소망을 표현한 것이 10여 수 되는데, 그 중 하나이다. 이 시는 이백이 자신을 비유한 것으로, 평범한 무리와 어울릴 수 없어 홀로 추위에 떨면서 멀리 날아가려는 것을 말했다.

특히 제9구의 王子晉이 누구를 비유하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여기서 왕자진은 장안에 있을 때 지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사서에 의하면, 이백은 자기가 남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알고, 賀知章·李適之·汝陽王 璣 등 8명과 어울려 술을 자주 마셔서 그들을 '酒中八仙'이라고 했다. 따라서 왕자진이 여양왕 진이라는 견해와 하지장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모두 있다.

賀知章으로 보는 이유는 이백이 처음 장안에 왔을 때, 하지장이 현종에게 추천했다. 그러나 하지장이 이미 죽어서 그 은혜를 끝내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탄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시는 이와 같이 표면적으로는 신선에 대한 갈망을 그린 것으로 보이나, 봉황은 이백 자신에 대한 비유로 자신의 고결한 뜻과 원대한 포부를 그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고평 제41수 朝弄紫泥海

朝弄紫泥海,³²⁾ 아침엔 자주 빛 바다에서 놀고
 夕披丹霞裳,³³⁾ 저녁엔 붉은 노을 물든 옷 걸치네.
 揮手折若木,³⁴⁾ 손 휘저어 곤륜산 나무 꺾어
 拂此西日光. 서쪽으로 지는 햇빛을 막네.
 雲臥遊八極,³⁵⁾ 구름 타고 저 머나먼 곳까지 노니며
 玉顏已千霜,³⁶⁾ 옥 같은 얼굴로 천년을 지냈네.
 飄飄入無倪,³⁷⁾ 가뿐히 천궁으로 날아 들어가

- 32) 紫泥海: 전설에 나오는 바다이다. 《洞冥記》 권1에 “동방삭이……여러 달 뒤 돌아왔다. 모친이 그를 매질하였고, 그 후 다시 집을 떠났다가, 해가 지나자 돌아왔다. 모친이 문득 보고선 크게 놀라 말하였다. ‘넌 떠났다가 해가 지나서 돌아왔으니, 무엇으로 날 안심시킬 거니?’ 동방삭이 말하였다. ‘진 紫泥海에 갔었는데, 紫水에서 옷이 더러워져, 虞淵을 지나다가 빨랐습니다. 아침에 갔다가 점심 때 돌아왔는데, 어찌 해가 지났다고 하십니까?’(東方朔……累月方歸。母笞之，後復去，經年乃歸。母忽見，大驚曰：‘汝行經年一歸，何以慰我耶?’ 朔曰：‘兒至紫泥海，有紫水汚衣，仍過虞淵湔洗，朝發中返，何云經年乎?’)” 라는 이야기가 있다.
- 33) 丹霞: 햇빛에 비치는 붉은빛의 운기. ○ 丹霞裳은 신선의 옷. 謝朓의 《七夕賦》에 “백옥을 둘러 장식으로 삼고, 붉은 노을 나부껴 옷으로 삼네.(厭白玉而爲飾，霏丹霞而爲裳)”라고 하였다.
- 34) 若木: 예전에, 해가 지는 곳에 서 있었다는 나무. 《離騷》에 “약목을 꺾어 해를 막고, 잠시 거닐면서 배회하네.(折若木以拂日兮，聊逍遙以相羊)”라는 시구가 있다. 王逸이注하기를 “약목은 곤륜산 서쪽 끝에 있는데, 그 빛이 천하를 비춘다. 拂은 치다 인데, 가리다라고도 한다.(若木，在崑崙西極，其華照下地。拂，擊也，一云蔽也.)”라 하였다. 또한 이르기를 “약목을 꺾어서 해를 막아, 해를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혹은 拂을 가리다라고 하는데, 약목으로 해를 가려, 해가 못 지나가게 하려는 것이다.(折取若木以拂擊日，使之還去。……或謂拂，蔽也，以若木蔽日，使不得過也)”라 하였다. 洪興祖는 補注에서 “《산해경》에서……, 또한 이르기: 회야자산에 잎이 푸르고 꽃이 붉은 나무가 있는데, 약목이라고 한다. 해가 들어가는 곳에 있고, 곤륜산의 서쪽에서 자라는데, 서쪽 끝과 가깝다.(《山海經》…… 又曰:灰野之山，有樹青葉赤華，名曰若木，日所入處，生崑崙西，附西極也)”라고 하고 있다. 蕭士贊은 주하기를 “이것은 바로 유선시이다. 거리낌 없이 과장해서 말하고 있다. 갑자기 동쪽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서쪽을 이야기 하고 있다. 어느 곳에 있는 약목을 꺾었는지를 정말로 알 수가 없다.(此乃遊仙詩，恣意大言，倏而東，忽而西，政不辨是折何處若木也)”라고 하였다.
- 35) 雲臥: 구름을 타다. 鮑照의 《代昇天行》에 “바람을 먹고 소나무에 기대어 자고, 구름에 누워 마음대로 하늘을 나네.(風餐委松宿，雲臥恣天行)”라는 시구가 있다. ○ 八極: 팔방의 지극히 먼 곳.
- 36) 千霜: 千年.
- 37) 倪: 끝, 가. 無倪는 여기에서 天宮을 가리킴.

稽首祈上皇.³⁸⁾ 머리 조아려 상제에게 비니,
 呼我遊太素,³⁹⁾ 나를 太素宮에 놀게 하시고
 玉杯賜瓊漿.⁴⁰⁾ 옥배에 담긴 불로수 하사하시네.
 一滄歷萬歲, 한번 마시면 만수를 누릴 수 있으니
 何用還故鄉? 어찌 고향에 돌아가리오?
 永隨長風去,⁴¹⁾ 언제나 멀리 부는 바람 따라
 天外恣飄揚. 하늘 위를 마음대로 날아다니리.

<校記>

제1구의 '朝弄紫泥海'는 '朝駕碧鸞車'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1구의 '泥'는 다른 판본에서는 '沂'라고 되어 있는데, 詹鍈은 '沂'가 틀렸다고 한다. 제3구의 '若'은 '弱'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5구의 '臥'는 '擧'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6구의 '已千'은 '如清'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8구의 '祈'는 '接'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13구와 제14구가 없는 판본도 있다.

<詳釋>

東方朔이 집을 떠나 아침에 자주 빛 바다인 紫泥海에서 놀다 옷을 더럽히고, 저녁엔 붉은 노을 빛 물든 신선의 옷 걸치네.

해가 지는 곳에 서 있는 곤륜산 나무인 若木을 손을 휘저어 꺾어서는 석양의 빛을 막았는데, 속세의 1년과 같았네.

나 또한 동방삭처럼 구름을 타고 저 떠나면 '八極'으로 가 놀면서 옥처럼 아름다

38) 上皇: 上帝.

39) 太素: 도가철학에서 '천지개벽 이전의 혼돈하던 상태'를 뜻함. 太易, 太初, 太始, 太素, 太極 이 천지개벽 전의 5단계를 나타내는 '五太'인데, '太素'는 이 5단계중의 하나이다. 또 다른 해석을 보면 《李白全集編年註釋》에 '천상의 궁궐'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眞誥》 권4에 "아침에 태소궁에 놀러 가고, 병거 타고 은하수 구경했네.(晨遊太素宮, 控轡觀玉河)"라고 되어 있는데, '천상의 궁궐'은 '太素宮'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0) 瓊漿: 신선의 음료. 여기에서는 불로수를 가리킴. 楚辭의 〈招魂〉에 "넘치는 술통 벌여놓고, 옥색 맑은 술 마시네.(華酌既陳, 有瓊漿些)"라는 시구가 있다.

41) 長風: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

운 얼굴을 간직한 채 천년을 지냈네.

그리고 몸 가벼이 날아 천궁에 들어가 상제를 알현하고 머리 조아려 상제에게
비니, 상제는 나를 불러서 太素宮을 구경시켜 주시고, 옥배에 신선이 마시는 불로
수를 담아 하사해주셨네.

그것을 한번 먹고 나면 만수를 누릴 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고향에 돌아갈
것인가?

언제나 멀리 부는 바람 따라 다니며 하늘 위에서 유유자적하게 날아다니고 싶
다.

<解説>

이 시의 창작연대에 대해 安旗는 天寶4년(서기 745년)이라고 하고 있지만, 詹
鐸은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창작연대를 단언하기
힘들다. 이 시에 대해 蕭士贊은 “이 시는 유선시이지만, 비홍으로 본다면 깊은 뜻
이 있다.(此是遊仙詩, 然以此興觀之, 亦有深意)”라고 하였으며, 奚祿詒는 “지금
을 애달파하며 옛것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유선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傷今思古,
不必作遊仙看)”라고 하였다. 이들은 모두 유선시임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비홍
의 각도에서도 이 시를 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朱諫과 詹鐸은 이들과 달리 이 시
를 유선시라고 단언하였으며, 詹鐸은 또한 비홍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다. 이 시의 앞 4구는 동방삭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동방삭과 같은 삶을 모방하
고 싶은 시인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 6구는 이백 자신이 신선이 되어
상제를 알현하고 상제에게 불사의 음식을 하사받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신선이
되고 싶은 시인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 4구는 만수를 누릴 수 있으니
고향에 돌아가지 말고 유유자적하게 신선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6) 고평 제42수 搖裔雙白鷗

搖裔雙白鷗,⁴²⁾ 너울너울 흰 갈매기 한 쌍
 鳴飛滄江流. 끼룩끼룩 울며 푸른 강물 위를 나네.
 宜與海人狎,⁴³⁾ 마땅히 바닷가의 아이와 친하리니
 豈伊雲鶴儔.⁴⁴⁾ 어찌 저기 구름 위의 선학과 짝하리오.
 寄影宿沙月, 모래톱 달빛에 진 그림자에 깃들어 자고
 彪芳戲春洲.⁴⁵⁾ 향기로운 봄 섬에서 즐거이 노니네.
 吾亦洗心者,⁴⁶⁾ 나 역시 마음 깨끗이 씻어내었으니
 忘機從爾游.⁴⁷⁾ 욕심을 버리고 너를 따라 노닐리라.

<校記>

제5구의 影이 形으로 된 판본도 있다. 제6구의 彪가 浚으로 된 판본도 있다.

<詳釋>

흰 갈매기 한 쌍이 너울너울 푸른 물결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다.

마땅히 邪心 없는 순수한 마음을 지닌 바닷가의 아이와 무림없이 어울릴지니, 보기에는 신선 기품이 있어도 실제로는 고삐 매인 말처럼 仙人에게 얽매어 부림을 받는 저 위 구름 속의 학과 어찌 어울리겠는가?

42) 搖裔: 흰 갈매기가 날개를 펼치며 나는 모습.
 43) 海人: 마음에 사심이 없는 사람을 비유. 《列子·黃帝》에 “바닷가에 갈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 바닷가에 나가 갈매기와 사이좋게 놀았다. 갈매기 수 백 마리가 끊임없이 내려와 앉았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갈매기들이 모두 너를 따라 노닌다고 들었는데, 잡아오면 내 놀이감으로 삼으마’했다. 다음 날 바닷가로 가니, 갈매기들이 공중에서 선 회하며 내려오지 않았다. (海上之人有好鷗鳥者, 每旦之海上, 從鷗鳥遊, 鷗鳥之至者, 百數而不可止. 其父曰, ‘吾聞鷗鳥皆從汝遊, 取來吾翫之.’ 明日之海上, 鷗鳥舞而不下也)”는 고사가 있다.
 44) 雲鶴: 仙人이 모는 것, 즉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얽매어 부림을 받는 존재를 비유.
 45) 彪: 선명하다. 현저하다. ○ 春洲: 謝朓의 〈晚登三山還望京邑詩〉에 “喧鳥覆春洲(요란한 새 소리가 봄빛 가득한 섬을 뒤덮는다)”는 구절이 있다.
 46) 洗心: 속된 마음을 씻어내다.
 47) 忘機: 욕심이나 사념을 버리다.

갈매기는 모래톱에서 달빛 받아 그림자 드리우고 자다가, 봄 향기 가득한 섬에서 구속 없이 마음껏 노닌다.

나 역시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속된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었으니, 목적을 이루려는 교활한 마음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저 갈매기를 따라 함께 노닐 것이다.

<解說>

이 시는 갈매기 한 쌍이 유유자적 푸른 강물 위를 비상하는 모습에 흥이 일어, 제약 없는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시인의 염원을 표출하였다. 이에 대해 蕭士贇은 “어릴 때부터 放逸의 뜻을 품고 있었던 이백이 翰林供奉 일 때 갑자기 江海로의 흥이 일어 지은 것인가?(太白少有放逸之志, 此詩豈供奉翰林之時, 忽動江海之興而作乎?)”라고 하였다. 安旗 또한 이 시를 天寶3년(744)에 편년하면서 “조정을 떠나기 전 江海로의 방랑의 뜻을 읊은 것이다.(去朝前作. 言其放浪江海之志)”고 했으니, 저작 시기가 詩意와 부합한다. 한편, 蕭士贇은 시에서 “구름 속의 학(雲鶴)은 仙官이 통치하도록 제공하는 자로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얽매인 존재를 비유하고, 바닷가의 갈매기(海鷗)는 野人과 무릅없이 어울려 노니는 자로 한가롭게 유유자적한 사람을 비유한다.(雲中之學, 乃供仙官控御者, 以喻在位之人也. 海上之鷗, 乃與野人狎翫者, 以喻閑散之人也)”고 하였으니, 시인의 마음속에 품은 이상을 부조리한 현실과 대비하여 잘 투영하였다.

7) 고평 제43수 周穆八荒意

周穆八荒意,⁴⁸⁾ 주 목왕은 팔방 끝까지 돌아다닐 뜻 두었고

48) 周穆: 周나라 제5대 천자인 穆王(?~921B.C.). 楚와 徐, 犬戎 등을 정벌하였다. 후에 ‘穆王西征’을 주제로 한 수많은 신화와 전설에 등장하며, ‘穆天子’로 불리기도 한다. 《拾遺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목왕이 즉위한지 32년에 천하를 순행하였다. 황금과 벽옥으로 장식한 수레를 몰아 기운과 바람을 타고 해가 뜨는 산에서 출발하여 아침부터 밤까지 천하의 바깥을 다 돌아다녔다. 기록하는 사관 열 명이 천자가 지나간 곳을 기록하였고, 또 열대의 옥 수레가 보조하여 왕의 뒤를 따라다니며 그 기록을 실었다. 왕은 여덟 마리의 빠른 용을 부렸는데, 고삐를 잡고 천천히 다니며 천지의 지역을 두루 돌았다. 왕은 지모가 신령하고 심원하여 발자취와 수레가 천하에 두루 미치게 하였으므로, 교통이 끊긴 곳의 사

漢皇萬乘君. 한 무제는 전차 만대를 거느린 군주였네.
 淫樂心不極, 방탕한 쾌락을 쫓는 욕심 끝없었으니
 雄豪安足論.⁴⁹⁾ 그 웅지와 호기 어찌 논할 만한가?
 西海宴王母,⁵⁰⁾ 서해에서 서왕모와 잔치를 벌였고
 北宮邀上元.⁵¹⁾ 북궁에서 상원부인 맞이했네.
 瑤水聞遺歌,⁵²⁾ 요지의 잔치는 남은 노래만이 들리고

람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복속하였다.(穆王即位三十二年, 巡行天下, 馭黃金碧玉之車, 傍氣乘風, 起朝陽之岳, 自明及晦, 窮萬縣之表, 有書史十人, 記其所行之地, 又副以瑤華之輪十乘, 隨王之後, 以載其書也. 王馭八龍之駿, …… 按轡徐行, 以匝天地之域. 王神智遠謀, 使跡履遍於四海, 故絕異之物, 不期而自服焉)” ○ 八荒: 八方的 荒蕪한 지역.

- 49) 淫樂心不極, 雄豪安足論: 이 두 구에 대하여는 '(그들은) 방탕한 쾌락을 쫓는 욕심이 끝이 없었으니, 그들에게 웅지와 호기가 어찌 논할 만한 것이었겠는가?' 즉 주 목왕과 한 무제는 웅지와 호기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또한 久保天隨와 大野實之助는 이 시의 제1, 3, 5, 7구는 주 목왕에 관한 기술이고 제 2, 4, 6, 8구는 한 무제에 관한 기술이라고 하면서 이 두 구를 '주 목왕은 방탕한 마음이 끝이 없어 세상 끝에 까지 돌아다니려는 뜻이 있었고, 한 무제의 웅지와 호기는 그의 자취를 살펴보면 무가치한 것으로 논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뜻으로 보았다.
- 50) 王母: 西王母. 서왕모는 《山海經·大荒西經》에 의하면 서해의 남쪽에 있는 神人이라고 한다.(西海之南 …… 有神人, …… 名曰西王母) ○ 宴王母: 《列子·周穆王》에 “왕이 크게 기뻐하여 국사도 돌보지 않고 신하와 비첩도 반기지 않은 채 제멋대로 멀리 놀러나갔다. …… 드디어 서왕모의 손님이 되어 瑤池가에서 술을 마셨다.(王大悅, 不恤國事, 不樂臣妾, 肆意遠遊. …… 隧賓於西王母, 觴於瑤池之上)”라는 내용이 있다.
- 51) 北宮: 한 무제가 神君에게 제사지내기 위하여 설치한 건물. 《漢書·郊祀志》에 이르길 “또한 수궁과 북궁을 두어 깃털 장식 깃발을 펼쳐놓고 제기를 늘어놓아 신군에게 예를 행하였다.(又置壽宮·北宮, 張羽旗, 設供具, 以禮神君)”고 하였다. ○ 上元: 上元夫人. 《太平廣記》권56에 인용된 《漢武內傳》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상원부인은 道君의 제자이다. 또한 태고이래로 도를 얻었다. 신선의 명부를 관리하는데 지위는 龜臺金母(서왕모)의 다음이다. 땅에 내려오면 대개 시녀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알려 스스로 손님이나 친구가 되었다. 한 무제는 신선의 도를 좋아하여 명산에서 기도하고 제사 지내며 신령의 응답을 구하였다. 元封 원년 신미년 7월 7일 밤 二更이 지나 서왕모가 한나라 궁궐에 내려왔다. …… 수레 준비를 명하고 장차 떠나려하니, 황제가 자리에서 내려와 질을 하며 머무르기를 간절히 청하였다. 서왕모가 다시 앉아 시녀 郭密香에게 상원부인을 불러오게 하여 한나라 궁궐에서 함께 잔치에 참석하였다.(上元夫人, 道君弟子也, 亦玄古以來得道, 總統真籍, 亞於龜臺金母. 所降之處, 多使侍女相聞, 己爲賓侶焉. 漢孝武帝好神仙之道, 禱醮名山, 以求靈應. 元封元年辛未七月七日夜, 二唱之後, 西王母降於漢宮. …… 命駕將去, 帝下席叩頭, 請留殷勤. 王母復坐, 乃命侍女郭密香邀夫人, 同宴於漢宮)”
- 52) 瑤水: 瑤池. 서왕모와 목왕이 만나던 곳으로, 신선들이 사는 곤륜산에 있는 연못. ○ 遺歌: 서왕모와 목왕이 불렀다고 전해지는 노래. 《列子·周穆王》에 “西王母가 王을 위해 노래하고

玉杯竟空言.⁵³⁾ 옥배의 일은 끝내 허튼소리 되었네.
 靈跡成蔓草, 신령한 자취 덩굴풀밭 되었으니
 徒悲千載魂. 공연히 천 년 뒤의 사람 마음 슬프게 하네.

<校記>

제2구의 '君'은 '尊'으로 되어있는 판본도 있다.

<詳釋>

주나라 목왕은 팔방의 황폐한 땅 끝까지 유람할 뜻을 두어 천하를 주유했고, 한나라 무제는 만대의 전차를 지휘하여 이족을 물리치고 중원을 안정시킨 위엄스런 군주이다.

그러나 이들은 음일한 쾌락을 추구하여 그 탐심이 끝날 줄을 몰랐으니, 이들이 아무리 영웅과 호걸이라 한들 어찌 평가할만한 것이 있겠는가?

주 목왕은 서해에서 서왕모를 만나 술을 마시며 사랑을 속삭였고, 한 무제는 북궁에서 신선인 상원부인을 맞아들여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

서왕모와 주 목왕이 술 마셨던 요지는 지금 간 데 없이 당시 두 사람이 불렀던 노래만 남아 현재까지 들리고, 한 무제는 하늘의 이슬을 받아 옥가루를 타서 마시

王도 이에 화답하였는데, 그 가사가 매우 애달팠다.(西王母爲王謠, 王和之, 其辭哀焉)라고 하였다. 또 《穆天子傳》에 “천자가 瑤池 가에서 서왕모에게 술을 따라주니 서왕모가 천자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흰 구름이 하늘에 떠있으니, 산과 구렁이 스스로 드러나네. 갈 길은 머나먼데, 산천이 가로 막았구나. 청하노니 그대 죽지 말고, 다시 올 수 있기를 바라네.’ 천자가 이에 다음과 같이 화답하였다. ‘나는 동쪽 땅으로 돌아가, 중원의 여러 나라를 조화롭게 다스리려네. 만백성이 고르게 잘살게 되면, 나는 돌아와 당신을 만나리라. 삼년 뒤면, 장차 당신의 들관으로 돌아오리라.’(天子觴西王母於瑤池之上, 西王母爲天子謠曰 ‘白雲在天, 山陵自出. 道里悠遠, 山川間之. 將子無死, 尙能復來.’ 天子答之曰, ‘予歸東土, 和洽諸夏. 萬民平均, 吾願見汝. 比及三年, 將復而野.’)”

53) 玉杯竟空言: 《三輔黃圖》에 인용된 《廟記》에 따르면, 한 무제가 신선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해 建章宮에 神明臺를 만들었는데, 그 위에 옥배를 두어 구름 위의 이슬을 모았다. 이 이슬에 옥가루를 타서 마시면 仙道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다른 주석에 따르면, 이 옥배는 한 文帝 때 方士 辛垣平이 옥배에 ‘人主延壽’라는 글을 새겨 넣어 신선이 보낸 물건이라며 황제에게 바친 일을 가리킨다는 설도 있다. 당시 文帝는 이 말을 믿고 辛垣平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그를 총애하였으나, 나중에 속은 것을 알고 그의 三族을 멸하였다.

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옥배를 만들어 이를 따랐지만 이 말은 끝내 공언이 되어버렸다.

서왕모와 상원부인의 신령한 자취는 이제는 모두 덩굴풀밭으로 변해버렸으니, 천년 뒤에도 후세 사람의 마음을 공연히 슬프게 한다.

<解説>

이 시의 주제에 대하여 역대로 평자들은 周 穆天子와 漢 武帝의 일을 빌려 唐 玄宗의 淫樂과 神仙 追求를 풍자한 것으로 보는 데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이백은 시의 말미에 “靈跡成蔓草, 徒悲千載魂.”라고 하였는데, 그가 슬퍼한 것이 제왕이 淫樂이나 求仙과 같은 허탄한 일에 빠져 국정을 그르친 사실인지, 아니면 제왕이 음락함으로 인하여 登仙의 꿈을 이루지 못함인지가 불분명하다. 특히 이백은 평소 도교를 신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백이 이 시에서 신선 추구를 비판했다는 견해에는 선뜻 동감이 되질 않는다. 아마도 이 시는 求仙 또는 好仙 자체를 비판하였다기 보다는, 음락과 장생불사를 위한 제왕들의 끝없는 집착과 추구, 그리고 그에 따른 국정의 피해를 풍자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 시는 제1구에서 제4구까지는 주 목왕과 한 무제의 淫樂을 말하여 그들의 雄豪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제5구에서 제8구까지는 이 두 제왕에 관한 전설이나 고사에 근거하여 이들이 求仙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표현하였다. 마지막 두 구에서는 이에 대한 이백의 傷感을 나타내었다.

8) 고흥 제44수 綠蘿紛葳蕤

綠蘿紛葳蕤,⁵⁴⁾ 푸른 소나무겨우살이 치렁치렁 우거져
 繚繞松柏枝. 술가지와 측백나무가지를 칭칭 감고 있네요.
 草木有所託,⁵⁵⁾ 초목은 의지하는 곳이 있기에

54) 綠蘿: 푸른 송라. 蘿(라)는 송라(松蘿) 즉, 소나무겨우살이를 말한다. 이끼류 식물로 주로 소나무에 기생하는데, 줄기와 가지에 붙어 황록색의 실 모양으로 주렁주렁 매달린다. ○ 葳蕤: 주렁주렁. 치렁치렁. 초목이 무성히 늘어진 모양.

歲寒尚不移.⁵⁶⁾ 겨울이 되어도 그 뜻을 옮기지 않아요.
 奈何夭桃色,⁵⁷⁾ 어찌 하나요? 화사한 복사꽃 얼굴인데도
 坐歎葑菲詩?⁵⁸⁾ 〈순무〉 시를 읊으며 탄식하게 되었음을.
 玉顏豔紅彩, 옥 같은 얼굴은 붉은 빛깔로 곱기만 하고
 雲髮非素絲.⁵⁹⁾ 구름 같은 머릿단은 아직 세지도 않은 걸요.
 君子恩已畢, 그대의 사랑이 이미 끝났으니
 賤妾將何爲? 천첩은 장차 어찌 해야 하나요?

<校記>

제8구의 ‘雲髮’은 ‘雲鬢’으로 된 판본도 있다.

<詳釋>

푸른 소나무겨우살이가 무성하게 자라 소나무나 측백나무의 가지를 감고 있다. 마치 금실 좋은 부부처럼, 남자와 여자가 열기설기 껴안고 있는 듯하다. 원래 공자가 “한 해가 추워진 연후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중에 시듦을 안다.(歲寒然後知松柏之後彫也)”고 말했듯이, 소나무와 측백나무는 추위가 와도 변함이 없는 데서 절개가 굳은 나무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소나무겨

55) 草木: 1,2구의 소나무겨우살이와 송백. 시적 화자가 자신을 소나무겨우살이로 가정하고 있으므로, 송백에 의탁하고 있는 소나무겨우살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56) 歲寒: 연말의 추위. 이 구는 《論語·子罕》에 “한 해가 추워진 연후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중에 시듦을 안다.(歲寒然後知松柏之後彫也)”는 말을 환기한다. 연말이 되어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시들지 않으므로 소나무겨우살이도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57) 奈何: 어찌 하나. ○ 夭桃: 고운 복사꽃. 《詩經·桃夭》에 “복숭아나무 무성하니, 그 꽃이 선 연하여라.(桃之夭夭, 灼灼其華)”는 말이 있다.
 58) 葑菲: 순무와 무. 《詩經·谷風》에 “순무를 캐고 무를 캐는 것은 뿌리 때문이 아니라네. 덕성이 나쁘지 않는다면, 그대와 함께 죽을 때까지 살리라.(采葑采菲, 無以下體. 德音莫遠, 及爾同死)”는 말이 있다. 순무와 무는 실사 그 뿌리가 나쁘다 하더라도 줄기가 좋기에 버리지 않듯이, 부부는 아내의 얼굴이 쇠했다 하더라도 그 덕성은 훌륭하므로 함께 사는 것이 옳다는 뜻을 말하였다. 〈곡풍〉에서는 여인의 얼굴이 쇠하여 내쳐지는 상황을 묘사했지만, 이백의 시에서는 아직 얼굴도 복사꽃 같은데 내쳐지게 되어 이를 탄식한다는 뜻을 넣었다.
 59) 雲髮: 운번(雲鬢)과 같다. 구름처럼 풍성한 여인의 머리타래. ○ 素絲: 흰 실. 백발을 가리킨다.

우살이도 추운 겨울과 같은 고난이 닥쳐도 변치 않고 어울려 살 것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남편이 나를 내치겠다고 한다. 《시경·곡풍》에는 “순무를 캐고 무를 캐는 것은 뿌리 때문이 아니라네. 덕성이 나쁘지 않는다면, 그대와 함께 죽을 때까지 살리라.(采葑采菲, 無以下體. 德音莫違, 及爾同死)”고 하여, 비록 순무와 무는 뿌리가 나쁘다 하더라도 줄기가 좋기에 버리지 않는다고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얼굴이 쇠한 것도 아니어서 뿌리도 싱싱하고 줄기도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내쳐지게 되었는지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얼굴은 옥 같이 붉은 빛갈로 곱기만 하고 머리는 구름처럼 이름답기만 한데 말이다.

아아, 그대의 사랑이 이미 끝났으니 이제 천첩은 어찌 해야 하는가?

<解說>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젊은 여인의 심사를 그렸다. 첫 4구는 비홍의 방법으로 여인과 남편의 관계를 어울리는 사이를 묘사하였고, 다음 4구에서는 아직 젊고 아름다운데도 내침을 당하여 하소연하였고, 말미에서는 시의 주지(主旨)를 서술하였다. 부부의 관계를 송라를 가져와 말하고 여인의 말투로 풀어나간다는 점에서 이 시는 ‘고시십구수’중의 〈한들거리는 외로운 대나무〉(冉冉孤生竹)를 잇고 있다. 첫 2구는 “그대와 더불어 결혼했으니, 새삼풀이 여라에 감겨 붙은 듯.(與君爲新婚, 兕絲附女蘿)”을 연상시키며, 말구는 “그대는 분명 나에 대해 높은 절개 지킬 터이니, 천첩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나요?”(君亮執高節, 賤妾亦何爲)를 환기한다. 그러나 ‘고시십구수’는 아낙이 객지로 나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원망하면서도 말미에서는 낙관적인 희망으로 끝맺고 있는데 비해, 이백은 내쳐진 여인의 어찌 할 수 없는 탄식을 토로한다. 역대로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군신 관계를 비유하였으므로, 이 시 역시 이백이 현종의 신임을 잃게 된 일을 비유한 것으로 본다.

3. 결론

이상으로 상세한 註釋과 校記·詳釋·解說을 통해 이백의 '古風' 59수 가운데 제37수에서 제44수까지 총 8수에 대해 번역을 진행했다. 이백의 '古風' 59수는 당시의 불합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풍자와 자신의 불우함과 그 감회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어 그 체제와 내용이 오연 영희 고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백은 젊은 시절 10여 년 동안 漫遊 끝에 742년 長安으로 갔으나, 744년 다시 장안을 떠나 재차 만유의 길을 떠났으며, 만년에는 從叔 李陽冰의 집에서 기거하다가 생을 마감했다. 이백의 '古風' 59수중에 연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약 30여수에 불과하나, 장안 시기와 장안을 떠난 이후에 지은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天寶 연간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제37수, 제39수와 제42수 등에는 이백의 사회와 인생에 대한 통찰이 잘 드러난다. 제41수는 전형적인 유선시이나, 제40수는 遊仙의 내용 중 자신의 포부를 나타내었다.

이백은 특히 전편에 걸쳐 다양한 詩文을 통한 典故을 자주 사용했는데, 품격이 고상하거나 탁월한 인물에 대한 묘사를 통해 자신의 포부와 뜻을 나타내었다. 제37수의 鄒衍과 과부도 모두 이백 자신을 비유한 것으로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을 빌어 현실에 대한 개탄과 풍자를 나타내었다. 즉 일찍이 詹鏞이 지적하였듯이, 이백의 시는 천마가 하늘을 날듯 거침없고 막힘없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한 구절도 내력이 없는 곳이 없다 할 만큼 經史子集을 섭렵하였으며, 아울러 문학가로서의 이백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參考文獻〉

- 清 王琦 注, 《李太白全集》上中下, 臺北, 華正書局, 1991.
 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1-8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安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上中下, 成都, 巴蜀書社, 1990.
 郁賢皓 注譯, 《新譯 李白詩全集》上中下, 臺北, 三民書局, 2011.

- 詹福瑞 劉崇德 葛景春 等,《李白詩全譯》,石家莊,河北人民出版社,1997.
- 大野失之助 著,《李太白詩歌全解》1-5,東京,稻田大學出版部,1985.
- 임도현,《이백시선》,서울:지식을 만드는 지식,2013.
- 宋肇,《漫堂說詩》,《清詩話》上,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9.
- 郁賢皓,〈李白「古風」五十九首芻議〉,《中國文學研究》,1989年 4期.
- 陶新民,〈論李白「古風」五十九首的用典〉,《大連大學學報》第4卷 第2期,1994.6.
- 楊海健,〈「古風」五十九首的來源與集成〉,《北京圖書館館刊》,1999年 第1期.
- 万德敬,〈從「古風」五十九首看李白的內心世界〉,《運城學院學報》第24卷 第13期,2006.6.
- 錢志熙,〈論李白「古風」五十九首的整體性〉,《文學遺產》,2010年 第1期.
- 吳台錫,〈李白古風59首考〉,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東亞文化》제20집,1982.
- 申夏閏,〈詠懷詩 전통 속의李白「古風」五十九首 研究〉,중국어문학회,《中國語文學志》제5집,1998.

〈中文提要〉

李白(701年則天武后長安元年-762年肅宗寶應元年)五言古詩代表着李白的詩歌成就,其中《古風》五十九首最為傑出。這一組詩不是按照創作時期編輯的,也不是一時一地之作。而且詩歌的主題豐富多樣,其結構幻變百端。因此,《古風》五十九首的版本編輯者、數量、主題等,研究者們眾說紛紜,莫衷一是。

所謂“古風”,原來是指一種古代的风俗或古人的品格。可是,清代宋榮在《漫堂說詩》中說:“阮嗣宗咏怀,陈子昂感遇,李太白古風,韦苏州拟古,皆得十九首遺意”,將“古風”理解為“古詩”,且作為一種詩體。此後李白的《古風》,在題材、內容和風格等諸多方面,一直被視為漢代之後咏怀古詩中最佳傑出。

本論文主要探討《古風》中的8首,即從37首到44首,其具體內容主要是原詩翻譯,校記,語釋和研析四部分。第37首以“邹衍”和“齐女”蒙冤感動上天為喻,批判黑暗的社会现实,也抒发自己无辜而被逐的悲愤之情;第38首以“孤兰”、“众草”、“清风”等为喻,表达自己由怀才不遇而孤独的心态;第39首以浮云遮、燕雀得志、鸾鸾失所为喻,讽刺奸臣跋扈的政治现实;第40首以“凤凰”自比,写出自己的理想和抱负;第41首是游仙诗,表示李白的人生理想,就是追求自由、渴望长生的理想愿望;第42首采用比兴手法,来表示“忘机从尔游”的自由生活;第43首借用西母王、汉武帝的历史故事,讽刺唐明皇好色求仙;第44首以夫妇为

喻，反映自己成年而失寵的悲哀。

总之，《古风》五十九首都是用五言古诗体式的无题诗，既表达李白对社会矛盾和怀才不遇的愤懑，又表现他对神境及自由生活的向往和愿望。可是多用典故，运用比喻、比兴的表现手法，比较含蓄隐晦。在本论文所研究的8首诗中都明显呈现出这些特点，从中我们深刻地理解到李白的精神风貌和人生境界。

關鍵詞：李白、李白詩、〈古風〉五十九首、譯註、詠懷。

이 논문은 2014년 4월 15일에 접수되어 2014년 5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4년 5월 20일에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